

「오카야마시장 메일메거진(117)」 2019년 7월 5일 호

【“도로”에 웃음이 넘치는 호코텐(보행자 천국)!】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달 23 일 도심속의 니시카와 료쿠도 공원길의 보행자 천국 「호코텐!」에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주역인 「어린이 호코텐!」에서 투구 벌레 관찰이나 물 놀이, 목공 등의 각종 체험 부스와 댄스, 노래 무대, 음식 코너 등이 료쿠도 공원내와 보행자 천국에 배치되어 가족 동반인 많은 분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도로에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엔 놀 수 없는 도로에 분필로 제각각의 그림을 가득 그렸으며 그 옆에선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호코텐이 원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녹음이 우거진 니시가와 주변의 활기 창출을 위해 행정 주체의 사회 실험차원에서 시작한 호코텐도 지금은 인근 점포의 경영자를 비롯한 자원 봉사자, 각종 단체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어린이 호코텐 이외에도 음식,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연 5 회 정기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문자도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도심속의 활기찬 이벤트로 완전히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코텐은 9 월 29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로 개최되는지 기대해 주세요!